

- 주요 뉴스: 연준 파월 의장, 이르면 12월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 인플레이션 대응은 지속
 - 미국 10월 JOLTS 구인건수, 전월비 감소. 노동수요는 여전히 견조
 - 유로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둔화. ECB의 금리인상 폭 축소 기대 증가
 - 중국 11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 7개월래 최저. 경제 봉쇄 등이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3.1%], 달러화 약세[-0.7%], 금리 하락[-1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으로 11주래 최고치
 유로 Stoxx600지수는 11월 역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등으로 0.6%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11월 ADP 민간고용의 예상치 하회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7%, 0.4%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12월 0.50%p 인상 가능성 등이 반영
 독일은 유로존 11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평가 등으로 1bp 상승
- ※ 원/달러 1M NDF환율(1301.2원, -17.6원) 1.3% 하락, 한국 CDS 하락

		11/30일	11/29일	전일대비			11/30일	11/2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080.1	3,957.6	3.09%	국채 금리 10y	미국	3.61%	3.74%	-13bp
	유럽	440.04	437.29	0.63%		독일	1.93%	1.92%	1bp
	중국	3,151.3	3,149.7	0.05%		영국	3.16%	3.10%	6bp
	일본	27,969	28,028	-0.21%	CDS 5y	한국	49bp	50bp	-1bp
	한국	2,472.5	2,433.4	1.61%		중국	78bp	78bp	0bp
환율	달러지수	106.03	106.82	-0.74%	위험 지표	EMBI+	-	385	-
	유로화	1.0406	1.0330	0.74%		VIX	20.57	21.89	-6.03%
	엔화	138.04	138.63	0.43%		WTI유	80.55	78.20	3.01%
	위안화	7.0924	7.1593	0.94%	원자재	구리	377.8	363.0	4.08%
	원화	1,318.8	1,326.6	0.59%		금	1,768.9	1,749.9	1.0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 파월 의장, 이르면 12월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 인플레이션 대응은 지속

- 파월 의장은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떨어뜨릴 정도의 제약적 수준에 근접하고 있기에 인상 속도를 다소 늦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발언.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는 시기는 빠르면 12월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부연
- 다만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이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 아울러 현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사안은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첨언
- 최종금리의 예상 수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연준이 9월에 예상했던 4.6%보다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약적 수준의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
- 내년엔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라는 신호가 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물가안정 회복을 위해 가야할 길이 멀다고 판단. 아울러 2% 물가상승률 달성을 위해 노동시장 열기를 식혀야 한다고 평가
- 한편 연준의 쿡 이사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너무 높아 적극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 금리인상 속도 조절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며,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고 설명
- 이날 공개된 베이지북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 연은은 금년 가을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 또한 기업들은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불확실성과 회의적 시각이 확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0월 JOLTS 구인건수, 전월비 감소. 노동수요는 여전히 견조

- 10월 구인건수는 1033만건으로 전월(1069만건) 대비 소폭 줄었으나, 1인당 구인건수는 1.7건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1.2건)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결과가 금리인상에 따른 노동시장 냉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
- 11월 ADP 민간고용은 12.7만건으로 전월(23.9만건) 및 예상치(20만건) 대폭 하회. 전문가들은 통화긴축이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

■ 미국 재무장관, 기업들은 중국과 대만 관련 지정학적 위험을 경계할 필요

- 엘런 장관은 기존의 공급망을 재검토하는 기업들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과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우려를 초래하는 중국의 관행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

■ 유로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둔화. ECB의 금리인상 폭 축소 기대 증가

- 11월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10.0%로 전월(10.6%) 및 예상치(10.4%) 하회. 이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 등에 기인. 시장에서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둔화로 ECB가 향후 금리인상의 폭을 이전보다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
- 다만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전월비 보합을 나타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6%로 전월(6.4%) 대비 높은 수준. 이에 일부에서는 고물가 여건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주장

■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내년에 인플레이션 수준은 떨어질 전망

- 휴 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가스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하반기부터 기저 효과 등에 의해 물가상승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 그리고 당분간 금리인상이 필요하지만 정책금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만큼 오르지 못할 것으로 관측

■ 중국 11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 7개월래 최저. 경제 봉쇄 등이 반영

-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11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는 48.0과 46.7로 모두 확장의 기준인 50을 하회. 세부항목 가운데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 모두 신규 수주와 신규 수출이 감소했으며, 이는 대내외 수요 부진 등에 의한 결과
-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에도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정부가 내놓고 있는 경기부양책 등의 효과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Capital Economics의 Sheana Yue)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1/3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4분기 성장률(수정치,전기비연율): 2.9%, 2/4분기(-0.6%), 속보치(2.6%)

■ 주요 경제 이벤트(12/1 현지시각 기준)

- 연준 보우만 이사 및 ECB 레인 이사 강연, 미국 10월 근원 PCE 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에 따른 수익률 곡선 역전 심화, 투자자들의 낙관적 인식을 형성 - WSI (Yield Curve Inversion Reaches New Extremes)

- 최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년물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장단기 수익률 역전 폭이 1981년 이후 최대. 통상적으로 수익률곡선의 역전은 경기침체가 다가오는 신호로 해석되지만 시장의 반응은 이전보다 낙관적
- 예상보다 낮았던 10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된 후 수익률곡선 역전 폭이 심화되었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를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정상적인 경제 복귀 예고로 해석
- 다만, 연준은 금리하락과 주가상승이 기업의 자금조달과 지출을 쉽게 하여 물가를 자극하는 것을 경계. 이에 추가 금리인상과 함께 고금리 기조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주식과 채권시장의 랠리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코로나 백신 국가주의가 원인 - WSI (China's Failed Covid Vaccine Nationalism)

-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재앙적인 이유는 당국이 정치적 이유로 시민들에게 mRNA 백신 대신 효과가 현저히 낮은 자국 백신을 접종하기 때문. 중국산 mRNA 백신이 출시되었으나 안정성 우려로 새 백신 접종이 언제 시작될 수 있을지 불분명
- 최근 독일은 중국에 외국산 백신 접종 검토를 제안.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종식을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중국 지도자들이 스스로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 중국 정부의 백신 국가주의는 전세계와 자국민에게 위협을 초래

■ 글로벌 기업, 중국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어려울 전망 - Financial Times (Companies will find it hard to diversify away from China Covid shock)

- 중국 인구의 약 1/3이 제조업 분야에 고용되어 있어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은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인력 부족을 악화시킬 소지. 현재 격리가 느슨해지고 단축되었음에도 중국 총 생산량의 1/5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
- 오랫동안 공급망 혼란의 해결책으로 중국을 떠난 다각화가 제시되었으나 광범위한 제조업 생태계가 중국의 제조 허브에 깊이 뿌리내려 있어 이는 쉽지 않은 과제
- 대안으로 제시된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든 두 가지 요소인 '규모의 경제'와 '값싼 노동력' 중 최소 하나가 부족. 따라서 높은 정치적 위험과 더 잦은 공급충격은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의 기본비용으로 고려될 필요

■ 유럽 경제, 그 동안의 전망이 과도하게 부정적이었을 가능성 - Financial Times

(‘We were too gloomy’: Europe’s business leaders turn more upbeat)

- 과거 전문가들은 에너지 위기 등으로 금년 겨울 유럽의 경기둔화 심화 가능성을 예측. 그러나 최근 경제 전망은 상대적으로 긍정적. 이는 낮은 실업률, 재정지원 강화 및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기인. 실제 유로존은 3/4분기 0.2% 성장률을 기록. 9월 소매지출과 산업생산은 각각 0.4%, 0.9% 증가한 반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둔화
- 독일의 경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제조업 피해가 경제산출량의 4%에 불과한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국한. 제조업 전반적으로 생산 및 수주가 양호하며, 11월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또한 10월 대비 상승(84.5→86.3)
- 다만 유로존은 경미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감소에 따른 ‘23년 천연가스 공급의 어려움에 직면할 소지

■ ‘22년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금리상승에 따른 새로운 시대에 진입 - Financial Times

(A year of pain: investors struggle in a new era of higher rates)

- 지난 1년간 연준의 인플레이션 인식 전환과 자산가격의 변화는 시장에 경종. 상품과 서비스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모든 계층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한편 자산가격 하락은 고소득층에게 피해
- 연준이 큰 폭의 금리인상과 함께 보유자산 축소에 나서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경험. 또한 중앙은행의 안전망이 고물가 시대에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음을 인지. 친환경 투자 확대와 지정학적 요인 등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상존
- 아직 경기침체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은 향후 통화정책에 과도하게 긍정적. 많은 투자자들은 미국 경기침체가 증시에 미치는 여파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인플레이션 지표인 면화가격의 하락, 전세계 물가상승 압력 둔화를 반영 - 블룸버그

(Inflation, Deflation and the Return of the \$1 T-Shi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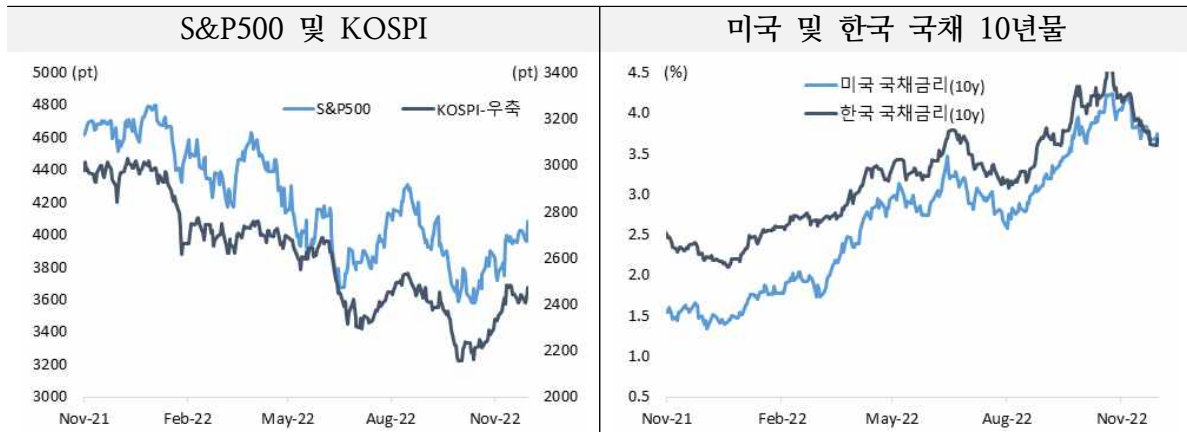
■ 향후 미국의 경기침체 대응, 이전보다 재정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 - 블룸버그

(Lesson Learned: Central Bankers Can’t Manage Economies All by Themsel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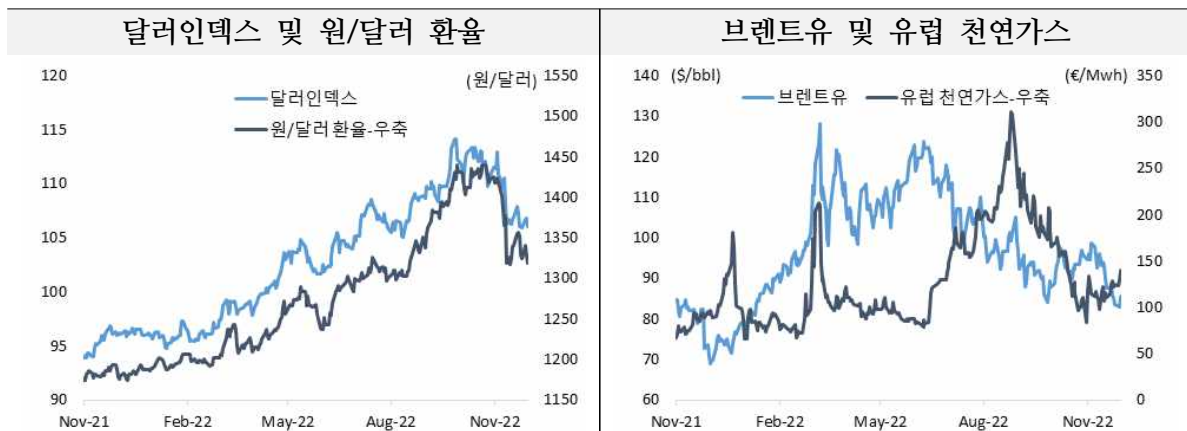
■ 미국의 양호한 노동시장 지속, 해고가 일부 대기업에 국한되고 있다는 의미 - WSJ

(Layoffs? What Layoff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